

# 재난예보·경보시설 없는 무등산 국립공원

## 국립공원 승격후 탐방객 늘어 산악사고 3배 급증

###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1대...안전 대책 서둘러야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기습 폭우에 따른 계곡·하천 범람이나 급류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높아졌지만 무등산 국립공원엔 재난위험 예보 및 상황 발생시 탐방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알려주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각종 산악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재난안전시설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국립공원)의 2014 국립공원 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재난사

고에 대비해 무등산 국립공원에 설치된 재난 예보·경보시설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1대가 전부다.

해당 국립공원에 20분당 16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내릴 때 자동으로 비상상황을 알려 탐방객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인 감시·통제·우량관측·경보·중계·수위관측시설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설치된 국립공원(해상공원·경주 제외)은 지리산·설악산·속리산·내장산·덕유산 국립공원 등 전국 16곳 중 11곳(68.75%)이다.

다른 대다수의 국립공원과 달리 무등산 국립공원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이 미설치

된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자동우량경보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 1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예산안을 올렸지만 상급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 반영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기습 폭우 시 입산을 통제하고 시설물을 확인하는 한편, 현장을 순찰하면서 탐방객들의 하산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관찰 면적(7만5425km<sup>2</sup>)이 넓고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10명~15명으로 한계가 있어 탐방객 고립 또는 계곡·하천 범람에 따른 수난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한 실족·일반조난·개인질환 등 산악사고 건수는 모두 221건. 이는 전년의 84건보다 137건(263%)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 들어 이날 현재 131건이 발생. 지난 2012년 한해의 수치(84건)를 이미 넘어선 상태.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탐방객 수 증가로 산악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이후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기관이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시설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자동우량경보시설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해당 예산을 올렸는데도 반영되지 않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며 “내년에 문자전광판을 4곳에 설치할 예정인데, 올 초 관련 예산 1억 원을 상급기관에 올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박기우 수습기자 pboxer@kwangju.co.kr



영광 외탄천 범람 18일 오전 내린 집중폭우로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앞 외탄천이 범람하며 농경지가 물에 잠겨 있다. 이날 영광지역은 오전 4시간 동안 250mm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 16동과 농경지 1000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5 해질 19:17  
달출 00:23 달몰 14:38

### 빗줄기 약해져요

흐리고 비가 온 후 오후에 서해안부터 점차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    |     |       |     |     |       |
|----|-----|-------|-----|-----|-------|
| 광주 | 한때비 | 21/26 | 보성  | 한때비 | 21/24 |
| 목포 | 한때비 | 21/25 | 순천  | 한때비 | 22/25 |
| 여수 | 한때비 | 22/24 | 영광  | 한때비 | 22/26 |
| 나주 | 한때비 | 22/26 | 진도  | 한때비 | 22/25 |
| 완도 | 한때비 | 22/25 | 전주  | 한때비 | 22/26 |
| 구례 | 한때비 | 21/25 | 군산  | 한때비 | 21/25 |
| 강진 | 한때비 | 22/25 | 남원  | 한때비 | 20/25 |
| 해남 | 한때비 | 22/25 | 홍산도 | 한때비 | 21/24 |
| 장성 | 한때비 | 21/25 |     |     |       |

### ◇바다 날씨

| 지역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서해 | 남서 | 북서~북  | 북서~북 | 0.5     |
| 남해 | 남서 | 북서~북  | 북서~북 | 0.5~1.0 |
| 남해 | 남서 | 북서~북  | 북서~북 | 0.5~1.0 |
| 서부 | 남서 | 북서~북  | 북서~북 | 1.0~1.5 |

### ◇물때

| 목포 | 밀물    |       | 썰물    |       |
|----|-------|-------|-------|-------|
|    | 시간    | 높이    | 시간    | 높이    |
| 여수 | 08:29 | 17:03 | 01:42 | 09:57 |
|    | 21:37 | 17:03 | 14:05 | 23:38 |

### ◇주간 날씨

| 20(수) | 21(목) | 22(금) | 23(토) | 24(일) | 25(월) | 26(화) |
|-------|-------|-------|-------|-------|-------|-------|
| ☁     | ☁     | ☁     | ☁     | ☁     | ☁     | ☁     |
| 21/27 | 21/28 | 21/28 | 21/29 | 22/26 | 22/26 | 22/27 |



### ◇생활지수

|     |    |
|-----|----|
| 식중독 | 46 |
| 운동  | 10 |
| 빨래  | 20 |

## 영광 250mm ‘물폭탄’...주택·농경지 침수피해

영광에 시간당 최고 60mm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비는 19일 오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20일 낮부터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영광 251mm를 최고로 광주 189mm, 무안 166mm, 함평 152mm, 곡성 132mm 등의 비가 내렸다.

영광에는 이날 새벽 4시부터 1시간 동안 59.5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밤사이 광주·전남 곳곳에 돌풍과 낙뢰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장대비가 내렸

다. 폭우로 영광지역 주택 16동이 침수되고 농경지 1000ha가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전 6시까지 집중된 폭우와 낙뢰로 서구 화정사거리, 북구청 사거리 등 15곳의 신호등이 고장이 나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편 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에 21일 까지 30~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검·경 허술한 수사...‘위법 수집 증거’ 법원이 제동

###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촬영사진 증거 인정 안돼

경찰과 검찰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재판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법원의 판단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른 것으로, 28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건에 대한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

는 18일 장성효사랑요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81)씨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김씨의 신체 촬영 사진에 대한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사전 동의를 구한 측면은 인정되지만 제대로 전달됐지는 회의적”이라며 “하자있는 의사 표시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고 밝혔다. 김씨가 심신미약(지매)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미경을 통한 촬영 등 구체적 설명을 통한 동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방화 참사가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라는 점에서 경찰과 검찰 수사가 꼼꼼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고배율의 현미경을 통해 촬영한 김씨의 불에 탄 양 눈썹 흔적과 손등의 화상 자국 사진 등을 김씨의

방화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물증으로 보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이와관련, “감정평가증, 영장, 김씨 사진 등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촬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측간 증거 채택 공방이 벌어졌었다.

재판부가 검찰 제출 증거를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함에 따라 검찰의 김씨에 대한 입증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김씨는 여전히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은 애초 신체 촬영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유리한 증거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전격적으로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사표 수리와 면직은) 김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BNC빌딩 수협 지멘스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501호  
동원(문선지점) 아바들(김지점)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무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60-29